

서울에서 1만7,240킬로미터, 남극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캐는 지질학자

지질학자 장순근 인터뷰

《남극 탐험의 꿈》에는 ‘넬슨섬의 파수꾼’이라고 소개한 체코의 남극탐험대원 페트르 나히만과 함께 에코넬슨 기지 내부에서 찍은 장순근(57) 박사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 사진 속의 장 박사는 만년설 같은 수염을 기른 채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사람. 아마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건디기 힘들 겁니다. 뻥한 사람. 뻥한 음식에 문밖을 나선다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자연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달라요. 오늘의 하늘, 구름, 바다는 어제의 그것이지 아니지요. 그러니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했죠.”

이북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말이 빠른 장 박사의 회고는 머리와 가슴 속에 담긴 남극의 풍경이 실체처럼 흘러나온다. 몸은 극지에서 떠나와 있지만 그만큼 들려줄 것도 보여줄 것도 많은 것이다. 기름을 옮기는 배를 타고 킹조지 섬에 들어온 겁 없는 배낭여행객 박수정 씨와 강영숙 씨, 서툰 글씨로 자신의 이름 써 책을 보내준 체코의 남극 탐험 책임자 야로슬라브 파블리체크 씨, 일부러 세종기지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취재기자 로프 스미스와 사진기자 마리아 스텐젤, 7개월간 6,400킬로미터를 탐험한 후 세종기지에 찾아온 프랑스 의사 장 루이 에띠엔느, 그리고 초속 40미터의 바람과 수십만 년 전 지구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만년설….

우리나라는 2002년 북극 연구를 위해 노르웨이 스텔바르 군도 스피츠베르겐 섬에 다산기지를 개설했다. 장 박사는 작년에 20일 정도 고생물화석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북극에 가 있었다. 남극과 북극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났다. 인류 공동의 재산인 남극과 달리 북극엔 원주민도 있고 땅주인도 있다. 노르웨이에서 매일 비행기가 들어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도시로 나갈 수 있다. 풍경도 북극이 더 볼 만했다.

“물론 환경 때문이겠지만 문화도 다릅니다. 끼리끼리 모여 좀처럼 다른 기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옛날과 같은 고립감은 좀 덜해졌지만 남극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이나 피부가 달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우며 친구처럼 지내죠. 남극은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장 박사와 남극과의 인연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LA 남가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해외연수를 받고 있을 때였다. 장 박사는 학교 도서관에서 팔려고 내놓은 헌 책들 중에서 논문집처럼 생긴 러시아 남극탐험대의 보고서 두 권을 집어 들었다. ‘10차 소비에트 남극탐험대 1달러34센트’, ‘11차 소비에트 남극탐험대 4달러59센트’. 그때 함께 산 남극지도는 잃어버렸지만 장 박사는 아직도 그 책들을 보관하고 있다. 그 다음해 한국에 돌아온 장 박사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따라 남극으로 떠났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애초 계획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남극 최고봉을 등반하고 오는 것이었다. 그러다 당시 외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등반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남극기지가 모여 있는 킹조지 섬 탐험대를 따로 꾸렸다. 함께 갈 과학자가 필요했다.

“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연구원)와 G연구소에 참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G연구소는 얼음 밖에 없는 남극엘 빙 하러 가냐고 무시해 버리더군요. 다행히 당시 소장이던 허형택 박사는 남극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 우리 연구소가 가난해서 경비를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나와 기상학자인 강릉대학교 최효박사가 따라나섰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한국해양연구원이 남극 연구를 주관하는 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1991년 두 번째 월동을 할 때였다. 찰스 다윈의 《비



글호 항해기》를 번역하던 장 박사는 문득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흘러보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하루하루의 일과를 기록한 비망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고 그날 아침 기온과 바람은 어땠는지 사소한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1995년 월동할 때는 200자 원고지 5,000장이 넘었다.

“이 비망록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집중만 하면 하루에 원고지 4,50장은 쓸 수 있어요. 비망록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으니깐요. 과학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월동대 활동도 마찬가지죠.”

남극은 19세기 초에 발견돼 아직까지 많은 게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대륙이다. 미지에 대한 호기심은 차치하더라도 남극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많다. 남극점은 여섯 달이 밤이고 또 나머지 여섯 달이 낮이다. 여섯 달 동안 별과 태양을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60배가 넘는 대륙인 남극은 평균 2,160미터가 얼음으로 덮여 있다. 눈이 다져진 얼음으로 그 안에 갇힌 공기를 분석하면 40만 년 전의 기후를 밝혀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지구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의 이상 징후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당장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극은 그야말로 기초과학 실험의 장場입니다. 공부할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한테 기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음 한 조각 얻기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나라도 말하지 않지만 막대한 양의 지하자원과 생물자원도 중요한 관심 중의 하나다. 장 박사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이 남극을 좀더 친근하게 느껴줬으면 하는 것이다. 거리상으로는 서울에서 1만7,24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그곳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활동하는 곳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보다 그래도 알아주는 일을 할 때 힘이 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또 장 박사가 바라는 게 있다면 해마다 떠나는 월동대 가족들이 자신의 책을 읽고 남극생활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월동을 떠난데 고등학생이던 딸아이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왜 또 가냐는 불만이었죠. 건강도 걱정이지만 1년간 떨어져 있어야 하니 가족들로서도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걸 네 번이나 했으니... 물론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안 갈 순 없습니다.”

장 박사는 이제 우리도 남극에 대해 연구다운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선 얼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쇄빙선을 운항하고 극점과 가까운 대륙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작년 12월 6일 만 27세의 젊은 나이에 남극에서 목숨을 잃은 17차 월동대 전재규 연구원의 비극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그의 죽음은 남극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쇄빙선 제작을 서두르는 등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남극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복출신인 그에게 고향은 부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곳은 남극이다. 세 번째 월동을 할 때 화를 내는 딸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남극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장 박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대답한다. **▶▶▶**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